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 폐막일인 지난 29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미제레레’ 연작을 감상하고 있다.

Georges Rouault

102일간의 여정, 막 내린 루오전... 한 작품도 놓칠 수 없었다

“루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미술관을 찾았다. 좀 더 빨리 방문해 작품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차분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루오는 조금 생소한 작가였는데 작품에 큰 감명을 받았다. ‘베로니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29일,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이 열리고 있는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전시 마지막날이었던 이날 하루만 3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주말 이틀 동안 5000여명이 방문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도슨트의 해설에 몰두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5일 개막, 102일간의 여정을 이어간 조르주 루오전이 지난 29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자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규모 블록버스터 명화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명화 전시를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닌, 인구 13만명의 지방, 그것도 개관 2년차 공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건 의미있는 일

지역서 보기드문 대규모 명화전 전국서 발길 5만여 관람객 호평 ‘미제레레’ 등 200여점 전시 전남도립미술관 위상 높아져

로 전시장을 찾아 감동을 받은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는 약 5만여명(미술관 추산)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 지역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진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한만도의 끝자락이라는 지리적 여건 등과 교통편, 유료 관람(성인 1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수치다.

파리 퐁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 말랭그렐리에서 엄선한 작품 200점을 만난 이번 기획전은 회화, 드로잉, 판화, 스테인드글라스, 타피스트리,

도자기 등 루오가 전 생애를 통해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주제별로 전시, 눈길을 끌었다. 루오는 사후 프랑스에서 국민장을 치를 정도로 명성이 높은 화가였고, 이번 전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내에는 덜 알려졌던 ‘자장’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았던 루오의 작품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삶과 맞물리면서 각성과 위로를 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루오가 비참한 마음으로 제작했던 ‘미제레레(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 모습처럼, 세상은 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음했고 어머니와 병사들의 슬픔을 위로했던 그의 작품은 여전히 유효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아파했던 이들이 어루만졌고, 연말연시를 맞아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도 제공했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루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58점의 판화 연작 ‘미제레레’였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독채적인 전시 공간으로 들어선 관람객들은 차분한 모습

으로 작품을 살펴며 내용을 곱씹었다. 또 ‘베로니카’, ‘루드밀라’, ‘두 형제’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으며 BTS 리더 RM이 인증샷을 올렸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작은 숲 1’에는 관람객의 카메라 세례가 이어졌다.

“루오가 그려 낸 인물들은 ‘모든 짐 진 이들의 얼굴’이라고 말한 ‘태백산맥’의 소설가 조정래 작가도 전시장을 방문, ‘루오를 이해하는 것은 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이번 루오전과 연계해 초보 관람객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뮤지엄 오디세이’를 진행,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자 숙명여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이다도시, 문화재 배틀스 ‘KBS-전상의 컬렉션’ 진행자로 활동했던 개그맨이자 방송인 서경석, 화가로도 활동중인 가수 조영남 등이다.

또 이종섭, 구본웅 등 한국작가들 23명의 작품 40여점을 소개한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시선 공명’ 전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역의 어린이, 초중고생들에게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전시 기간 동안 광양 용강중, 화순 이양고, 진주 반성초, 광양 보보유치원 등 4000여명의 단체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밖에 광양상공회의소가 미술관에서 신년하례식을 진행하고 입장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메세나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개관 2년차인 신생미술관의 이름을 알리고, 한 번쯤 찾아보고 싶은 미술관으로 관람객들에게 기억되는 등 미술관의 위상이 높아진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글·사진·광양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적 명화 통해 미술관에 오는 즐거움 주고 싶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지난해부터 줄곧 긴장 상태였다. 지역에서는 유례가 없는 대규모 명화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의 마지막 날인 29일 이 관장을 만났다.

“102일, 긴 여정이 끝났네요. 관람객 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미술관 위치라든가 유료전시(1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한 전시고, 지역민들이 발품 팔지 않고 가까이서 편하게 세계적인 명화를 볼 수 있는 기회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루오의 작품이 시대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고, 남도 풍광과 자연이 주는 성서적 풍경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는데 관람 후기를 보면 전시 개최 의도를 훨씬 잘 이해하신단 합니다. 전시 퀄리티에 대한 칭찬의 글들도 많이 뿌듯하구요. 일이 많은 국제전을 치른 직원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합니다.”

휴일에도 미술관을 지켰던 이 관장은 서울에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진지한 관람객들 마음에 남아” “어린이·학생들 예술경험에 뿌듯”

새벽기차를 타고 오는 관람객, 2-3차례 반복해 찾아오는 관람객 등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이들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광양 등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시를 차분히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인기가 많아 도슨트해설을 늘리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이 정말 열심히 듣는 모습도 잊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천천히 관람하며 작품을 곱씹는 것도 인상적이었구요. 관람객들의 진지한 태도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듯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래 전 인연을 맺었던 조르주 루오 재단에 이 관장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됐다.

“왜 루오의 전시를 한국의 최남단의 작은 도시에

서 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했죠. 유럽사람들은 그 곳 사람들이 역사에 정교했거나 등 시대 정신에 관심이 많습니니다. 전남도는 유배지로서 엘리트들의 문화가 있었고, 남종화라는 한국미술의 바탕을 이룬 곳이자 김환기 등 한국 현대미술의 개척자를 배출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던 곳임을 어필하며 인간을 사랑했던 루오의 예술정신과 통할 거라고 했죠. 그 결과 기관 대 기관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가 성사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가 지역에도, 미술관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번에 미술관이라는 곳을 처음 와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모든 전시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작품을 보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이번 전시가 그 갈증을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또 광양상공회의소가 미술관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티켓을 구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조르주 루오 전을 찾은 조장태(왼쪽) 소설가와 포즈를 취했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졌죠.” 이 관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술관도 한 차례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미술관이 현대미술, 설치, 미디어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컨템포러리적인 작품은 쉽게 접하기 어렵죠. 앞으로 이런 장르의 작품이 계속 소개될텐데,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 먼저 관람객들에게 미술관에 오는 즐거움, 미술작품에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도 지역을 아우르는 전시와 함께 국제화를 지향하며 다양한 전시를 열 생각입니다. 수목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등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 전남의 대표 문화시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전시만 좋다면 지역이라는 한계를 딛고 선진미술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은 것도 소중 중 하나입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5월문학제·여름섬진강학교 내실있게 진행”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신임 회장에 정양주 시인

광주전남작가회(작가회의)의 신임 회장에 정양주 시인이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작가회의는 지난 28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9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추천된 정양주 시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정 회장은 “문학적 역량이 부족한 체계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건 ‘심부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2년 동안 작가회의의 관련 일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임회장단 및 고문단의 성과를 잘 받드는 한편 회원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미있

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가회의가 발행하는 기관지 ‘작가’지의 위상을 높이고 문학적 담론을 생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회의가 연례 개최하는 5월문학제나 여름섬진강학교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향후 작가회의의 지역 지부들과의 연대도 주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와 순천, 목포 지부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작가회의의 문학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정양주 시인

또한 그는 “작가회의는 자유실천문인협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단체로, 향후 지역사회가 처한 문제 등에 작가들의 목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작가포럼 등을 통해 지역문학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양주 시인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작가회의의 사무국장, 비타포엠 회장을 역임했다. 작품집으로 ‘별을 보러 강으로 갔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인협회 임원에 지역문인 노창수·윤영훈·강경호 당선

한국문인협회 임원선거에 지역 출신 3명의 문인이 당선돼 화제다. 중앙문단 임원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이 3명이나 당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광주문인협회는 최근 실시된 한국문인협회 28대 임원선거에서 광주문인협회 회원인 노창수 시인(전 광주문인협회장), 윤영훈 시인(전 광주전남아동문학회장), 강경호 평론가(시인·시와사람 발행인)가 임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선거에서 노창수 시인은 시 분과 부이



노창수 시인



윤영훈 시인



강경호 평론가

사장에, 윤영훈 시인은 아동문학 분과 부이사장에, 강경호 평론가는 평론분과회장에 각각 당선됐다.

특히 지역 출신 문인이 평론분과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지역 평론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